백화점 "1% 고객 잡아라"

광주신세계·롯데 등 VIP손님 매출 늘어

문화강좌 초청·명품 진열 서비스 강화

"믿을 건 상위 1%뿐 고마울 따름이죠."

불황에 따른 전반적인 내수 부진에도 백화점 상위 고소비 고객은 계속 지갑을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황과 상관없이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백화점 업계는 이들 VIP(신세계 VIP, 롯데 MVG)들에 대한 마케팅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다.

8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등 지역 백화점에 따르면 9월 상위 VIP고객이 구매금액 비중은 2%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같은 기간의 매출 신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백화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연간 구매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 상위 1% 고객을 VIP, MVG 고객으로 분류하는데, 장기적인 경기불황에도 큰손들의 소비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연간 매출 상위 3% 이내를 VIP 고객으로 선정 관리하고 있는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정확한 수치는 공개할 수 없지만 VIP 월평균 매출이 명품 구매를 포함해 일반고객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런 '큰손'을 상위 5%로 확대하면 백화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매출 최상위 1%를 일컫는 VIP고객(MVG)의 9월 1인당 평균 구매 금액은 240만원으로 지난해 235만원보다 보다 2.1%가 늘어났다.

이는 앞선 1~8월 평균 구매액이 1.2% 신장하는 데 그쳤던 점과 비교해 신장세가 눈에 띈다.

이들의 선호 구매 상품군은 전통적으로 구매 강세를 보였던 해외 명품 상품군은 10% 이상 줄어든 반면 대형 가전·홈패션 등 가족 관련 상품군이 12% 이상 큰 폭으로 신장했다.

전체적인 불황으로 인해 본인 중심의 소비 패턴은 인색했지만 가족을 위한 소비에는 아낌없이 지갑을 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처럼 상위 1%의 매출 비중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백화점들은 불황에도 끄떡없는 이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발렛파킹 및 무료주차, 고급 문화강좌 초청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VIP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지난 2006년부터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광주신세계 컨시어지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신세계는 매월 VIP를 초청하는 문화콘텐츠 고급 강좌에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이번 가을 정기 바겐세일 기간에 더 많은 VIP(MVG)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VIP(MVG)만을 위한 영화관람, 만찬 행사 등이 대표적이며 VIP(MVG) 라운지에 명품이나 고가의 쥬얼리 제품을 진열, 소개하는 등 직접적인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불황속에서도 VIP 고객의 소비가 느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지갑을 닫지 않는 VIP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보다 강화될 것이고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용보증기금 신입직원 50명 채용

21일까지 접수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이 2013년도 신입직원 공채를 실시한다. 입사지원서는 21일까지 신보 채용홈페이지(recruit.kodit.co.kr)를 통해 자기소개서와 함께 접수하며, 채용 예정인원은 고졸(6급)채용 약 10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학력·나이·전공에 제한이 없는 5급 채용의 경우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6급(고졸)은 신보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거나 학교장추천을 받은 상업계특성화고 출신자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을 장애인에게 할애하고, 저소득층, 청년인턴 경험자를 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신보는 지난 3월 정규직전환 조건부 인턴 50명을 채용해 5개월간의 전환평가절차를 거쳐 8월초에 4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쌀 등급 '특·상·보통'으로 단순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구돈회)은 8일 쌀 등급 단순화 등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5개 등급(1~5)을 3개 등급(특·상·보통)으로 단순화하는 한편 단백질함량 표시를 임의사항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 쌀 등급표시제의 등급이 복잡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 양곡유통업체들이 등급을 '미표시'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 양곡유통업체의 포장 디자인권 제고를 위해 생산자 이름과 주소·전화번호 등의 정보는 포장 뒷면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기준 완화, 거짓·과대 표시나 광고 범위 명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출산용품 30% 할인해 드려요"

롯데백화점 내일 박람회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임산부의 날(10일)을 맞아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용품 박람회'를 개최한다.

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오는 10일 하루 동안 8층 특설 매장에서 출산을 앞둔 고객을 대상으로 출산용품 전 품목을 30% 특별 할인해 판매한다.

또 유·아동 인기 상품이 대거 참여해 최대 80%까지 특별 할인 혜택을 주는 '특별 기획전'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수입 명품 유모차 초특가 상품전도 마련해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부모들에게 구매할 기회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출산 전문 업체 보령메딩앙스와 함께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출산을 위한 산전관리'와 '웃음 치료를 통한 태교'를 주제로 임신육아 강좌를 10일 오후 6시 롯데문화홀에서 진행한다.

8층 특설 매장에서는 명품 수입 유모차 경매 이벤트도 벌인다.

한편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010년 광주·전남 기업 최초로 보건복지부 '아이낳기 좋은세상 광주·전남 운동본부'와 출산장려를 위한 협약식을 하기도 했다.

류민열 롯데백화점 광주지역장은 "출산 장려는 단순히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관계된 모든 산업계가 동참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 분야다"며 "앞으로도 출산장려 관련 다양한 행사를 전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가을엔 레인부츠 태풍 등 갑작스런 일기변화 소식에 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구두 매장을 찾은 고객이 가을 비오는 날씨에 어울리는 레인부츠를 고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모든 통·병조림 축산물 세균검증의무화

'축산물 가공기준' 개정 고시

모든 통조림과 병조림 축산물에 세균발육시험이 의무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병조림 축산물과 레토르트 축산물의 위생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고시를 8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세균 제거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하는 세균발육시험 대상이 기존의 '멸균제품'에서 모든 통·병조림으로 확대됐다.

또 멸균처리보다 온도가 낮은 살균처리를 할 수 있는 산성도 기준을 pH 4로 명확하게 규정,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인 저산도를 유지하는 통·병조림과 레토르트 식품은 살균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규정은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개정 고시는 현재 통조림에 납땜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통·병조림의 납 검사항목을 삭제했다.

일반적으로 냉동육은 냉장했다 다시 냉동해서 유통할 수 없지만 냉동 축산물의 뼈를 절단하거나 발라내기 위해 10℃이하로 일시 해동을 하는 경우 재냉동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개정된 고시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채권전문가 98% "10월 기준금리 동결할 것"

한국금융투자협 조사

국내 채권전문가의 98.4%가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24~27일에 걸쳐 채권전문가 2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8.4%가 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현재 연 2.50%)를 동결할 것으로 답했다고 8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일부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위험요인이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성 때문에 이달에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10월 채권시장 심리는 지난달보다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채권시장의 전반적 투자심리를 나타내는 10월 종합 채권시장 체감지표(BMSI)는 93.9로 나타나 지난달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금리에 대한 투자심리는 지난달보다 크게 악화됐다. 10월 금리전망 BMSI는 72.4로 지난달보다 21.3포인트나 하락했다.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불확실성은 국내 채권시장에도 강세 재료로 작용하겠지만,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과 미국 양적완화 출구전략 등으로 금리 상승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탓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자의 비율도 지난달 23.0%에서 10월에는 39.8%로 늘어났다.

그밖에 물가와 환율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지난달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물가 BMSI는 지난달보다 3.8포인트 오른 91.1이었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10월 물가가 보합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고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의 비율은 13.0%로 지난달보다 3.7%포인트 하락했다.

/연합뉴스